

로컬푸드리포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정식 개장

익산시 정보화교육 인기

이달 7일에 시작된 익산시 정보화교육이 교육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정보화에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기초과정, 스마트폰과정의 수준별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해 이달부터 11월까지 4회 진행한다. 교육생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 고령 88세 어르신도 있다. 교육생들은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부터 시작해 마우스 움직임, 인터넷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컴퓨터와 친해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화에 소외되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알기 쉽고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주요 간선도로 정비

군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도로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정비에 나선다.

시는 노후되거나 겨울철 폭설과 제설 작업 등으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 20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 개최되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와 전북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해 6억원을 투입, 주요 간선도로인 변영로 외 20개 노선 18km를 우선 정비해 군산시를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원광대생 견학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8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재학생 20여명이 익산소방서를 찾아 119소방안전체험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의 소방관을 꿈꾸는 소방행정학과 재학생들이 소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실무를 접목시켜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20여명의 미래소방관들은 소방 굴절차 등 각종 소방 장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체험하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현지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학과에 들어왔다는 한 학생은 "작업 소방차에 탑승해보고 인명구조 장비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유익했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기분이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300여 농가 생산 400여 품목 다양한 농산물·가공품 판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이 10일간의 임시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1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을 비롯한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직매장 참여 농가, 인근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1호점은 어양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억4천만원이 투입되어 1층 504㎡규모로 신축됐다. 사무실과 소분실, 저온저장실 등을 갖췄다.

직매장에서는 300여 농가가 생산한 400여 품목의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판매된다.

농가들은 가격결정과 포장 진열 등의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고, 출하와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고품종 및 영세농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은 시에서 신축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단체는 작년 11월에 공모를 거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은 시에서 신축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단체는 작년 11월에 공모를 거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토요어울림장터, 하립장터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온 생산자 중심 협동조합이다.

이날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은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은 도시민과 농약민의 상생과 화합을 이룰며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고교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자 늘어

서울대 8명 · 고려대 19명 · 연세대 12명 등 448명으로 역대 최고

군산시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대학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서울소재 및 주요대학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6학년도 입시결과 서울대 8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12명, KAIST, 사관학교 등 서울소재 및 주요대학에 448명이 합격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5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2016년 대학입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학교 관계자들은 군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펼쳐온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손꼽고 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과거 군산시의 교육환경이 참체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우수중학생이 군산을 떠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결하고자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캠프 운영', '우수 중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펼쳐 왔다.

이같은 결과 2016년 고입시험에서 군산지역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인근 전주와 익산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재단의 핵심사업인 '군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 '입시설명회' '논술특강' 등 전국 최고수준의 강사들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과 강의의 학생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획적 역할을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수산물연구공단지 위판물류동 최종낙찰자 수협 선정

최근 해망동 수산물연구공단지 지 위판물류동에 대한 입찰이 조달청의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 가운데 최종낙찰자로 군산수협이 선정됐다.

입찰은 3번째 진행된 것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시된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군산수협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내세운 가운데 군산수협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수산물위판은 수협의 독점 권한으로 일반인은 입찰 참여자격이 없어 수협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 거주지 또한 군산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입찰 참여 대상은 군산수협만이 유일한 셈으로 타 업체의 입찰참여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군산수협은 당초 위판물류동의 무상 임대를 주장했지만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군산시가 입찰참여자격을 완화시키려 하자 3차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것이다.

특히 1차부터 3차에 걸친 입찰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산시와 수협간의 사전 결탁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는 입찰공모를 앞두고 최종낙찰업체에 입찰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군산시 수산물연구공단지 운영관리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두기관의 결탁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농기원, 씨고구마 육묘관리 주의 당부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정곤)은 "튼튼하고 건실한 고구마 종순을 생산을 위해서 씨고구마 선별과 육묘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4년 현재 3,125ha로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구마종순 생산은 익산, 김제, 고창 등지에서 100ha 이상의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규모와 기술이 앞서 있다.

고구마 육묘를 하기 전에 먼저 건전한 씨고구마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고구마는 썩지 않고, 껍질이 매끈하며, 품종고유의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또한, 씨고구마가 겨울에 저장하는 동안 10°C이하의 낮은 온도에 하루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 냉해를 입어 씨고구마가 갈색으로 변하며 썩어 들어가고, 단단하지 않으며 썩어 잘 트지 않고 쉽게 썩는다.

씨고구마는 육묘상 10m²에 80~120kg을 묻는 것이 적당하다.

씨고구마는 5m간격으로 벌려 서로 붙지 않게 배열하고, 씨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어주고, 무거운 비닐하우스 안에 육묘상은 설치하고, 소행터널을 만들어 2층으로 보온해주는 것이 싹트는데 유리하다. 육묘상에 비료는 질소-인산-칼리의 성분은 10kg당 각각 6-4-5kg 정도이며, 흙속에 골고루 잘 섞이도록 경운을 해주어야 한다.

물주기는 온도가 높은 낮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주되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온도관리는 썩지 않게 30~33°C, 썩어 지를 때는 23~25°C를 유지해주어 육묘관리를 펼쳐서 해주어야 한다.

특히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육묘기간 중에 야간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종순 발육이 적어지고, 생장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을 위하여 육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리미리 보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호원대,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화제'

호원대(총장 강희성)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신입교원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HINTs(Howon Initiative for New Teaching competencies)'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플립러닝은 온라인으로 강의 내용을 미리 배우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방법으로 혁신적 수업모형으로 꼽히고 있다.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들의 요구로 기획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HINTs'는 신입 교원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수업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학습과 학생 이해, 상호 작용 전략, 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교원은 15주 동안의 성과를 티칭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호원대는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HINTs'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모든 교원에게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증을 발급하며, 신입 교수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수업 시수 3시간을 인정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 교원은 오는 6월 17일까지 15주간 진행되어 지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참여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핵심]

세제 용량 100~150ml를 배수구로 붓고, 싱크대 배수구 하부에 위치한 배수통을 청소할 수 있는 배수구 상부에 설치된 배수구 청소기를 돌려줍니다.

배수통 청소 후 배수통 내부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배수구 상부에 위치한 배수구 청소기를 돌려줍니다.

배수통 청소 후 배수통 내부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배수구 상부에 위치한 배수구 청소기를 돌려줍니다.

배수통 청소 후 배수통 내부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배수구 상부에 위치한 배수구 청소기를 돌려줍니다.